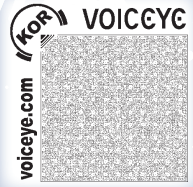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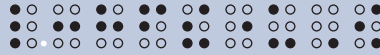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산타클로스
시선집중	04	● 예산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없을까 조재훈(프리랜서 작가)
테마기획	06	● ‘2019 시각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터뷰	08	● 뉴스의 생생함을 전하는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이창훈 아나운서
포커스	10	● 향으로 보여지는 풍경, 시각장애학생들이 표현한 빛의 언어 제3회 ‘프라고라마’ 조향 전시전
함께 사는 이야기	12	● 가을 단상 이성희(서울특별시 용산구)
월드 리포트	13	● 시각장애인 미국 정치가 킬리만자로에 오르다! ● ABC 시각장애인 기자 나스타시아 캠페넬라
뉴스앨범	14	● LG유플러스 AI 스마트홈 스피커 전달식 가져! ● 2019 시각장애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실시! ● SK텔레콤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전달식 가져!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안내견 등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 산타클로스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산타클로스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		대괄호[ ]						
영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ㅎ' 다음에 약자 '영' 이 올 때는 '영'으로 바뀐다.

# 예산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있을까?

조재훈(프리랜서 작가)

지폐처럼 우리 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우월감을 가지고 치르는 돈을 시각장애인들은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조심스럽게 저자세를 되어 사용하고 있다. 돈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돈에 점자 표시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표시가 잘 식별되지 않는 데다 그 지폐의 경도가 약해 금세 마무되어 실효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지폐는 그 길이를 액면이 적게 나가는 것일수록 짧게 하여 구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한 방법이 못 되었다. 그 길이의 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촉각이 둔한 중도실명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물건 값을 다섯 배 혹은 열 배나 되게 치르는 손해를 입을 때도 있었다. 천 원짜리와 오만 원짜리는 워낙 차이가 커서 웬만하면 감지할 수 있지만 천 원짜리와 오천 원짜리 또는 만 원짜리 같은 것은 식별이 어렵다. 지갑의 사이사이에 액면에 따라 꼼꼼히 준비해 가지고 다녀도 급하게 돈을 치를 때는 실수가 생긴다. 이러한 실수는 금전적인 손해도 그렇지만 장애에 대한 비애와 함께 마음의 상처로 더 깊게 남는다.

그런데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식별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좀 더 따져보면 그냥 수궁이 가는 일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성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불편한 점이 많다. 우선 돈을 사용할 때마다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지폐가 한두 장일 때는 모르지만 액면이 클 때는 어쩔 것인가. 물론 보통 때는 몇 천 원, 몇 만 원 단위 내외에서 거래를 하지만 때에 따라 몇 백, 몇 천 만원씩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생겨도 앱을 활용할 수 있을까? 휴대전화기 역시 기계이므로 고장이 있을 때가 있다. 또 고장이 아니라도 전원이 나가면 먹통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기계가 위조지폐까지 식별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의문이 남는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촉각으로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화폐의 제조가 절실하다. 장애인들의 복지에는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더 큰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다.

당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애를 썼었다. 그러므로 당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폐를 발행하는 데는 목표가 이미 정해져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 실효를 거두도록 기술적인 방안만 바꾸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폐 제조 방안을 새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세계적으로 보아도 화폐의 제작은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국제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국의 문화와 국민의 정서에 따라 화폐를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달러나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우리나라의 원화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이를 위해 지폐의 모양을 달리한다 하여 국제법 같은 데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폐의 색깔이나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도 자유롭다. 돈에 점을 찍거나 그 길이를 마음대로 정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돈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는 디자인의 새 화폐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엉뚱한 것처럼 낯설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슬소슬 톱니가 돌거나 구멍이 뚫린 지폐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었다면 오히려 관심을 모을 수도 있다. 손가락으로 감지될 수 있는 구멍이 뚫린 돈! 분명히 빈축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했다는 의미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폐수집가들 뿐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선진국이 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서 가장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시각장애인들은 동전을 구분할 때 대개가 그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게 된다. 동전은 지폐와는 달리 그 액면의 크기에 따라 식별이 가능 할 만큼 모양이 각각 다르니까.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나타나있는 톱니 같은 것을 더듬어서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지폐에 적용한다면 액면에 따라 지폐의 크기를 지금의 5mm정도에서 몇 cm이상씩 차이를 두거나, 종이돈의 변두리에 톱니가 나타나도록 찍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지폐나 동전에다 구멍을 뚫어놓는 것이다. 촉각으로 감지될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는 방법은 아주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시각장애인들이 구멍이 뚫린 엽전을 가장 잘 식별하였으니까. 그 구멍 역시 액면에 따라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두거나, 구멍의 수에 변화를 주면 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위조지폐의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뚫어 무늬를 놓고 있다니 천공에 필요한 새로운 조폐기의 제작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지폐에 구멍이 뚫리거나 톱니가 나타나도록 절단하면 그 수명이나 파손에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구멍이 송송 뚫리고 둘레에 톱니 같은 장식이 있는 섬유질의 여름모자가 빨리 파손되거나 수명이 짧아진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오히려 제작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저가의 동전은 그 액면보다 재료비가 더 든다고 한다. 이것도 구멍을 뚫는다면 재료비가 절약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새 방법을 찾으면 복지서비스가 무작정의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창출하는 길을 열 수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시각장애인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한 우리 모두는 차별의 대상이다.”

– 케네스 저니건(Kenneth Jernigan)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시각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의 프레드릭 슈뢰더 회장, UN 장애인권리 협약위원회 이시카와 준 부의장, 영국 왕립시각장애인협회(RNIB) 데이비드 클락 서비스 책임자, 아시아·태평양 지역분과 UN 옹호자 지역 네트워크 마틴 아벨 책임자 및 전국 시각장애인 지도자 등 총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단상에 오른 슈뢰더 회장은 시각장애인 자립운동의 다난했던 과거와 세계위원회의 억압, 그리고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창설과 현황을 개괄하며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슈뢰더 회장에 따르면 중세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들은 ‘궁핍한 사람들’로 인식될 뿐 자주적인 지위를 갖지 못해 시각장애인의 역사는 어두웠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는 말을 끝으로 시각장애인 스스로 사회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며 홍순봉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공유된 정보들이 국내에서는 전무한 지역사회 내의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뉴스의 생생함을 전하는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이창훈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달할 내용과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도전, 그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목소리로 현장의 긴장감을 전달하는 이창훈 아나운서를 만나보았습니다.



### Q.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의 직업하면 안마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나운서를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그렇죠. 시각장애인이하면 보통 안마를 떠올리죠. 맹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안마를 배우기 때문에 저도 안마사자격증은 갖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에 도전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할 때 주위에서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서인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야구 중계를 들었어요. 근데 목소리 하나로 긴장감 있는 야구 중계를 그려낸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야구 중계를 통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궁금했습니다. 또한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KBS에서 아나운서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준비 기간이 좀 짧았지만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 Q.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A.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주로 듣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팟캐스트 방송을 합니다. 야구라는 게 중계를 듣는 것만큼 방송할 때도 무척 긴장감이 있거든요.



**Q.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인지 궁금합니다.**

A. 전 우연치 않게 아나운서 모집 공고를 알게 되어 준비 기간이 무척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게 방송 뉴스 모두를 반복해서 듣고, 읽고 그 뉴스를 제가 따라해 녹음 한 후 녹음 된 목소리를 주위 지인 들한테 들려주면서 수정하고 발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Q.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로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되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어려운 점은 처음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준비 과정이 짧은 탓에 기본기 다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시청자들에게 뉴스 보도를 전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나운서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보람되었던 건 소년원이나 재소자분들로부터 받았던 편지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로 인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를 보고 힘을 얻었다고 했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되었습니다.



**Q. 아나운서를 꿈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A.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기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본다면 내적으로 책을 많이 봐서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외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생명입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자기관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지금처럼 방송 일을 하고, 아나운서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장애'에 집중하기 보다 유쾌하고 친숙한 아나운서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주어진 현재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청년이니깐요.



# 향으로 보여지는 풍경, 시각장애학생들이 표현한 빛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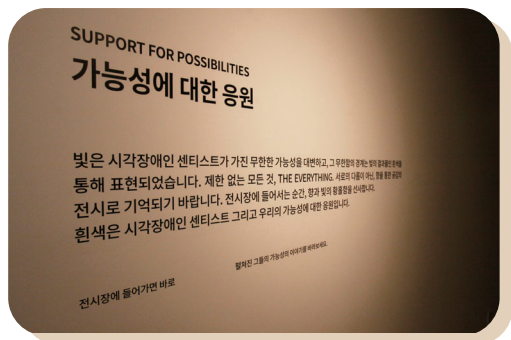
## 제3회 '프라고라마' 조향 전시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 피크닉전시관에서는 제3회 프라고라마 조향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2015년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만든 다채로운 향기와 함께 2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제3회 '프라고라마(Fragorama)'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프라고라마'는 향으로 그리는 풍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그룹은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로 구성된 조향 그룹입니다.

프랑스 자연주의 브랜드 록시땅(L'OCCI-TANE)은 조향 교육 브랜드인 '센토리'와 함께 서울맹학교에 방과 후 조향스쿨을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조향사라는 직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회는 세 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요. '빛의 팔레트'를 주제로 보이는 것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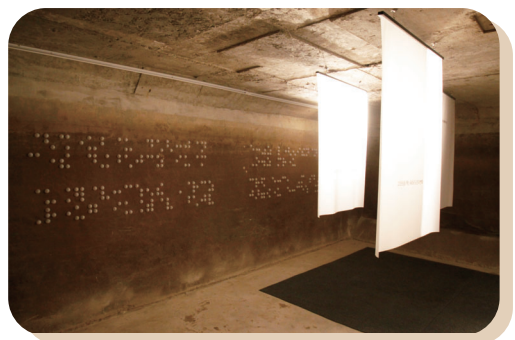
인 빛과 색을 학생들의 감각과 접목하여 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향으로 보여지는 풍경 '프라고라마'를 통해 일상의 풍경을 무한한 향기의 하모니로 표현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는 전시회 향기의 여운은 학생들의 감각으로 풍경의 시각적 요소를 향기로 표현해냈는데요. 이번 전시를 직접 준비한 학생은 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전했습니다.



손끝에서 퍼지는 무한한 향기의 풍경은 마치 눈을 감으면 프로방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자연에서 빌어온 향기 언어가 어우러져 그들만의 풍경을 만든 이번 전시회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 보여 지는 것 등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향기 언어로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그리고 계절은 어떤 향기로 기억하고 있나요?



# 가을 단상

이성희(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한 일상을 살다 보면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의외로 적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 시간마저도 혼자가 아니다. 그러다 아주 잠깐 우연히 마음의 틈이 생기는 때가 있다. 그 때 내 안에서 나만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그 감정은 도무지 무어라 한 마디로 일컫기 어려운 여러 감정이다. 초조함 같기도 하고, 의구심 같기도 하다. 궁금함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다. 알 수 없는 서글픔이 꾸물거리기도 하고 무슨 배포인지 다 잘 될 것만 같은 자신감이 일렁이기도 하다. 똥똥지 같이 설레기도 하고 그런 설렘이 내 것 같지 않아서 팬스레 애잔하다. 그러다 이내 “나”에게서 떨어져 나온다. 다시 분주하고 어수선한 삶의 모습으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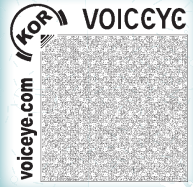
시원하던 바람이 이제는 차갑게 여겨진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그림자는 길어지고 남은 달력 장수는 허전 하리만큼 야속하게 두어 장 달랑 남아있다. 그 두어 장의 시간 속에도 여러 가지가 채워지겠지만 다른 때보다 아쉬움을 덜 남길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음악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준다. 어떤 시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힘. 또한, 다양한 노래를 듣더라도 희한하게 여러 감정 중에서 지배적인 감정이 더 크게, 세계 내 가슴 안 쪽 벽을 스스로 긁는다. 노랫말을 듣더라도 맥락을 갖고 전체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부분에 그냥 꽃힌다. “많은 상처에 얼어붙어 둘러싸인 내 마음을 되새기며...”

그 감정이 이 가을을 지나고 있는 ‘나’겠지 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말이다.

여느 가을이 지나듯 이 가을도 흘러간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 마음의 시계보다 너무도 빠르게 속절없이 지난 일들이 되어버린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만나는 시간에 둔감해지는 것 같다. 그럴수록 ‘나’ 자신과 멀어져서 헛헛할 텐데 말이다. 깊어지는 계절만큼, 깊은 곳 나 자신과도 만날 일이 자주 생겼으면 하는 가을이다.



## 시각장애인 미국 정치가 킬리만자로에 오르다!

미국의 시각장애인이자 현역 정치가인 사이러스 하비브씨는 올해 38살로 정치인이자 변호사 및 교육자이며 워싱턴의 16번째 현 부주지사이며, 워싱턴주 상원의원이기도 한데요. 하비브씨는 미국 정계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장 앞서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장애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비브씨는 지난 9월에 장애 청년인 크리스티나 브라운씨와 함께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 등정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등정은 워싱턴 지역의 장애인 청년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청년 장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꿈을 심어 주기 위해 실천했다고 말했습니다.



## ABC 트리플J 뉴스 저널리스트 시각장애인 나스타시아 캠페넬라

호주의 저널리스트 나스타시아 캠페넬라는 2011년부터 ABC에 합류하여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어렸을 때 그녀는 변화되는 것을 좋아해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ABC에 합류했을 때 시각장애인 최초의 기자였다고 하는데요. 호주인 5명 중 1명은 장애가 있고 그 중 수 천 명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나스타시아 캠페넬라는 그룹과 협의하고 3개의 지역 사무소와 고위 리더십 팀의 직원들과 대면 세션을 진행 한 후 ABC 최초의 온라인 장애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피지에서 그녀의 첫 번째 텔레비전 뉴스를 생산하여 지금은 먼저 음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디오 뉴스 게시판을 읽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자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지식과 경험으로 가치가있는 이야기에 대한 재능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LG유플러스 U+ 스마트홈 스피커 전달식 가제!

지난 11월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LG상남도서관 심우섭 관장, LG유플러스 CRO 박형일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이 탑재된 U+스마트홈 스피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U+스마트홈 스피커와 방문설치, U+스마트홈 우리집시 서비스 이해를 돕는 점자 및 오디오 설명서를 제공하는데요,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 점자도서관 담당자에게 U+스마트홈 우리집시 서비스 활용 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2019년 시각장애어르신 효사랑 큰잔치 실시!

지난 11월 27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의 섭취가 더욱 필요한 대상으로 시각장애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식사 및 다과 등을 나누며 노래자랑, 다양한 공연 등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SK텔레콤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전달식 가져

SK텔레콤은 12월 4일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피커 '누구'를 한시련에 전달했습니다. '누구' 사용 방법은 간단하데요. 시각장애인은 책내 또는 원하는 장소에 설치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에게 음성으로 "아리아~ '행복 도서관 어린 왕자' 읽어줘"라고 말하면 작동이 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의 보급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내견 등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중증시각장애인의 단독보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의 대중 교통 수단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운송규칙 제 28조) 안내견을 단지 하나의 동물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승차가 거부되어서는 안되지요?  
또한 호텔, 병원 등의 공공장소 출입에 제한 받는 것 역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펠래야 펠 수 없는 사이란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12월 233호

발행일 2019년 1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나을  
발행번호 노원 라00042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31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